

# 당정,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검토한다

### 확진자 감소... 영유아 마스크, 정서·사회성 발달 부정적 영향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폐지도 검토... 전문가 논의 거쳐 개선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조한 감소세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사회 분위기 활성화를 감안한 마스크 착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폐지하고, 영유아 마스크 착용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검각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점검해 국민 불편과 재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 주요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과 위생 차원에서 살내는 물론 실외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 모양을 보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장애인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고,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대만도 올해 11월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선이 어디쯤인지 오늘 해답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허용, 해외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전세계에서 입국 후 PCR 검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으로,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PCR 검사 폐지는 긍정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번 6차 유행의 방역으로 대응에 선 코로나 발생 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유행을 억누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큰 확산세 없이 유행이 잦아들고 있고, 일상 회복에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 대응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백경관 청장은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서,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면역력 감소, 겨울철 실내생활 증가 등으로 겨울철 재유행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무안 환타지’ 전남 정원페스티벌

### 30일부터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일원...60개 정원 전시

전남도는 30일부터 4일간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일원에서 주민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무안환타지! MUAN FANTAS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60개 정원작품과 5개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0일 오후 5시 주현미, 박현빈 등 인기 가수 10여 명이 출연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원으로의 환상여행을 출발하게 된다.

이번 정원페스티벌은 작가정원, 시민정원, 참가정원 등과 함께 학생정원 분야를 추가해 지난해보다 17점 많은 60개 정원을 전시한다.

분야별 우수작품 총 17점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1300여 만원의 푸짐한 시상금도 주어진다.

또 남악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무안환타지’를 새롭게 운영한다. 행사에 참여할 20개 상가의 각 대표 매뉴를 개발해 행사 기간 시식권, 참가정원 상품권 등을 제공해 상가 홍보와 함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밖에 정원119 가든상담소와 플라워팍, 다육이 정원, 미니토피어리 정원, 보존화(프리저브드 플라워), 모스정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토존 5곳을 조성해 방문객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꾸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2023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

### 5년간 50억 지원...둘레길·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전남도가 도내 유인도를 대상으로 10월 4일까지 ‘2023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대상지 4개 섬을 공모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면 5년간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의 지원한다. 마을식당을 비롯해 펜션, 섬 둘레길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육지와 다리를 연결된 섬은 제외되고 2개 이상 마을이 있는 섬의 경우 거점 마을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사·군에서 제출한 서류와 대상지 현장평가 및 정책평가를 거쳐 11월 초 선정 섬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계획, 총 24년째에 106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5년 6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개

섬을 선정했다. 가고 싶은 섬 20개소 중 여수 남도, 손죽도, 고흥 연흥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생일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기점·소악도 등 10개 섬은 관광 기초시설 조성을 마치고 현재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신안 반월·박지도는 2021년 ‘제1회 유엔관광기구(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의 날’에 선정돼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국고 건의와 투자유지를 통해 섬별 특성에 맞는 명품 섬을 조성하고 도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전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9일 광주 북구 상사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한산한 PCR검사소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면제 등 방역 완화책을 논의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65세 이상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

### 절반 이상 “더 일하고 싶다”...3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고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고령자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가 고령자라는 의미다.

통계청은 3년 뒤인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다. 고령자 가구의 3분의 1을 넘는 187만5000가구가 1인 가구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환혼 이혼은 점차 늘어나

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3.4%, 17.5% 증가했다. 재혼 역시 전체 연령층에선 감소했지만 65세 이상에선 증가세가 감지됐다.

가족과 노후준비 등에 대한 고령자의 의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 지난해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특수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010-3605-5000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맹지사절. 010-3605-5000

## 광주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와 연계한 주거복지센터가 신청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은 매주 수

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시청 1층 민원실 내)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토지정보과를 통해 접수한 뒤 상담위원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집보기 동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거주 희망지 1-2곳을 사전에 정한 뒤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과 일정을 협의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고려대학교 2022 초대부고인 총동창회 어울림 한마당

영산강유역환경청 공 제2022-61호 「영산강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지역·지구지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주식회사 남유종합건설 공 제2022-09-01호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정정공고 2022년 9월 15일자 개편된 주식회사 창강과 중앙건설 주식회사의 분할합병공고 중 중앙건설 주식회사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영천정도길 111, 1층에서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동로 90-20으로 본점 이전하였으므로 정정공고함.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인: 양 고령씨(450223-XXXXXX) · 피후수: 광주 남구 시민내(450227) 19, 101호 1904호 (전원동) 한국이메일(유이비)

산행안내 10월1일(토) ▲광주호신회 10월1일(토) (청와대탐방복 역산트레킹) 오전 05시 0분 광동대 캠퍼스 7주 차장출발 05시 30분 테페백화점 05시 4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2년 9월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300,000,000원 중 금 150,000,000원정을 감소하여 금 150,000,000원정으로 하고, 그방법으로 1주 10,000원의 26,000주에 대하여 각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총발행주식 66,000주를 40,000주로 감소한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구주권을 가진 자는 이 공고일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함.

신주배정기준일공고 당사는 2022년 9월 28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식 보통주식 86,132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한바 상법 제 418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으나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2년 10월 17일 -신주식 청약일: 2022년 11월 3일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명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원도군 완도읍 죽성리 농공단지 내 면적: 공장 150평, 방청도 200평 (급방동, 방청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최신기계설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적 ☎010-2390-5343, 010-9300-507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2166, 010 6702 9796

光州日報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31일간 구독할 경우 10% 할인. 구독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46(옥동) 대표이사 구남호